-꿈-

…꿈이었겠지!

은혜 선배가 욕을 하고, 칼을 빼 들고 협박한다고?

꿈이다. 그것도 개꿈. 이상하게 현실감 있어서 내가 착각한 거지.

요즘 학생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말도 안 되는 악몽을 꾼 거야.

나도 참. 꿈하고 현실을 헷갈리다니. 피곤하기는 했나 보네.

웃고 있는 은혜 선배에게 나도 미소로 답했다.

“아뇨. 딱히 고민은 없어요.”

“후후, 그래?”

“선배는요? 선배는 별일 없으세요?”

“나? 나는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긴 해.”

“세계사 선생님이 맡긴 축제를,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고민이야.”

“저번에 듣기론 사진 찍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학교 마지막 축제가 될 텐데. 너무 작게 하면 아쉽잖아?”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면 일이 괜히 커지고, 다른 것들도 문제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긴 했다. 정말로 사진만 찍을 정도면 생색내기용 축제가 될 텐데. 그럼 하나 마나 한 이벤트가 되고 말 거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무작정 일을 키워봤자 축제만 어정쩡해지겠지….

“으음…. 그러면 선배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

“네. 어쨌든 선배가 맡은 축제잖아요. 선배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나, 나는….”

“…기왕이면 좀 큰 축제면 좋겠네.”

“나한테도 고등학교 마지막 축제고. 후배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추억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 후후, 너무 거창한가?”

선배는 부끄러워했지만, 내겐 그것마저도 너무 굉장해 보였다.

남이 억지로 떠맡긴 일인데도,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

아…. 나는 대체 이렇게 착한 선배를 두고, 왜 그런 꿈을 꾼 걸까.

미묘하게 남아있던 어젯밤 꿈을 지워버리고, 나도 용기를 냈다.

“그러면 선배.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 아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둘이 하면 축제 규모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은혜 선배는 걱정스럽게 내 표정을 살폈다.

“학생회도 하고, 이것도 하면 엄청 바쁠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선배도 저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내 마음이 닿은 걸까. 은혜 선배는 내 말을 듣곤 살짝 웃음 지었다.

선배지만 귀엽게 웃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아서….

“합격.”

…응?

“괜찮네. 평소처럼 대하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선배?

웃음이 사라진 차가운 표정의 은혜 선배가 날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모습은 마치 어젯밤 꿨던 꿈….

(회상)

꿈이 아니었나…?

“말 잘 듣는 걸 보면 어디 가서 어제 얘기를 떠벌리진 않을 것 같고. 연기도 좀 하는 편이고.”

꿈인지 확인하려고 새끼손가락을 꺾을 필요도 없었다. 냉기 어린 선배의 눈빛이 내 정신을 깨워버렸으니까.

“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 눈으로 은혜 선배가 나를 아래위로 흩었다.

“생각보다 써먹을 만하겠어.”

“뭐. 지금은 볼일 없으니까 나가봐. 연기는 지금만큼 하도록 하고.”

“…네.”

“좋아, 그럼….”

“있다가 학생회에서 보자?”